

시화호 살리기 운동본부(가칭) 구성 제안서

1. 취지 및 목적

시화호를 살리는 일은 우리지역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시화호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화호 유역의 많은 오염물질들을 제대로 관리하여 시화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재 오염되어 있는 하천과 시화호를 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가도록 역할을 하는 지역의 연대단체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화호 살리기 운동본부(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 활동방향

1) 시화호 유역의 오염원이 시화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선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가 적극적인 계도와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을 설득하고 특히 공장, 농장 등의 비점오염원관리를 지도점검하고 전도시에 걸쳐서 비점오염원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2)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시화호 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함께 하도록 노력한다.

3) 시민사회에서는 시화호 살리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최대한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토록 한다.

4) 유용한 미생물(EM)에 대해 교육, 홍보하고 모든 가정에서 유용한 미생물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EM을 대량제조해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무상으로 EM제품(비누, 세제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의 시민단체들에게 이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이다.

6) 시화호 살리기 운동본부가 만들어진다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함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수질을 개선하면서 이과저에서 안산시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후에는 안산시가 EM제조공장을 설립하게 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무상이나 저렴하게 나누어 주고 사용토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7) 특히 기관중에 단체급식을 하는 곳인 학교와 군부대, 기업등에 EM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EM을 대량생산하여 모든 지역주민과 기관이 사용하도록 하고 하천과 시화호에 투여하도록 한다.

3. 구성

1) 참여대상

- 우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후 지역의 많은 풀뿌리 단체들이 함께 하도록 한다.
이후 지역의 새마을, 바르게, 통반장조직, 각종 친목단체 등을 단계적으로 포괄하여 조직해 나간다.

2) 구성시기

- 시화호 살리기 운동본부(가칭)의 필요성에 대해 가능한 빠르게 공감하고 10월 중에 구성한다.

4. 시범사업

- 각종 교육과 홍보사업

학교의 학부모, 선생님, 교회나 성당, 불교의 신자모임,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군부대,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각종 모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예를 들어 호수공원 저수지의 수질개선운동을 실시하여 수질이 좋아지면 이를 계기로 경기도와 3개시의 정부가 이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해 나간다.